

늘봄학교에 농촌체험 연계

전북자치도교육청-도농기원, 전주·익산교육지원청-농기센터 간 협약 체결 체험농장, 치유·도시농업 인증 프로그램 적용... 9월부터 4개 학교 시범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늘봄학교에 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23일 익산 농업기술원에서 민완성 미래교육과장과 권택 자원경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체험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희망하는 학생에게 농촌체험과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사업 실행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농업기술센터, 익산교육지원청-익산시농업기술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촌체험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 △학교안팎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농촌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와 익산지역 4개 초등학교에서 농촌진흥청 인증 교육농장 농촌체험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증 치유·도시농업 등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농촌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에 농촌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3일 익산 농업기술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손을 맞잡았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 회의적 주장 나왔다

도내 교원단체, "갑질·교권 침해 일삼는 도내 A초 초빙 교장 중징계하라" 촉구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과 교권 침해를 일삼는 도내 A초 초빙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초빙형 교장 공모를 통해 2023년부터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해당교의 교장은 초빙형 공모 교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공모 교장에게 기대하는 능력도 보여 주질 못했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 교사 10명 전원이 교무회의를 통해 반대하였음에도, 본인의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직인을 한 교무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구입한 당구대는 A초 교장이 주로 이용했다"면서 "수업 종소리가 울려도 멈추지 않는 일도 빈번해 결국 당구대를 빈 교실인 1학년 교실로 옮겼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출장, 지각, 조퇴, 병조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과 교권 침해를 일삼는 도내 A초 초빙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등으로 학교를 거의 한 달 동안 비우고,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강요를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에서 현 교장이 이전의 초빙 교장과 함께 4년 동안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가꾸었던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현재 정교 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A초 교

장은 갑질, 교권침해,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공모 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서거석 교육감은 A초 교장을 직무능력판단 사유로 신속히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초 교장 사안은 초빙형 교장 공모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장공모제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교원 AI·SW 역량 강화 지원

전북교육청, 정보·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 개설

방학·학기중 연수까지 총 450시간, 30학점

내달 30일까지 진행 하계연수, 4과목 180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보·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직업계고 교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또 NCS 기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맞춘 계열별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점제 및 전복굴로 컬 특성화고 추진에 따른 학생의 교과

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집합 및 원격 연수로 구성된 이 연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중 연수까지 총 450시간, 30학점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는 8월 30일까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하계연수는 4과목, 180시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연수는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AI활용 교육, 컴퓨터 교육론 등 컴퓨터와 인공지능, 또 기초이론과 각 전공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활용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이어 학기중 연수는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계연수는 내년 1월 6일부터 6주에 걸쳐 각각 진행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변화에 요구되는 기술교육 연수 지원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따른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역사 탐구의 실수·왜곡 잡는 사례 제시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역사의 오류를 읽는 방법' 출간

전주대학교 오항녕 교수(사학과, 사진)가 '역사의 오류를 읽는 방법'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역사의 오류를 읽는 방법'은 누구나 역사에 접근하면서도 정작 어떤 경우에 오류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없던 학계와 역사 애호가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오류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에 편견을 품은 영국인이 찍은 사진(영웅이 친 처형 사진) 한 장 때문에 중국 문명은 아편의 대명사로 전락했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 한 토막을 제시하며 박지원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소재를 삼기도 했다. 이런 오류는 저자 자신도 예외일 수 있는데, 그 역시 '자치통감' 연구자인 원나라 호삼성의 말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특히 동서양 역사학을 대표하는



두 거목인 헤로도토스와 사마천의 저술(역사, 사기)이 빠질 수 없고, 인류 최초의 역사학 개론서인 '사통(史通)'부터 우리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실록'까지 중요한 역사 문헌들이 비중 있게 실렸다.

이 책은 영화 '300',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대중문화, 스포츠를 통한 적절한 비유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내준 시험문제와 본인의 일기까지 인용하면서 교양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저자인 오항녕 교수는 "조화에는 별레가 없듯, 살아 있는 인간이기에



오류를 저지르는 법이라고 위로부터 "오류가 생기는 과정을 알면 우리는 한결 건강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 교수는 그동안 조선시대사, 기록학, 역사 이론 등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해 오며 역사학자 영향력 상위 1%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제18대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의 질 향상 지원 등에 심혈"

박수정 신임 우석대의료원장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제18대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의료원 임직원 및 내외 귀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병용 전 원장 임명과 공로패 전달, 신임 박수정 원장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상제질에 기반한 통합 암 치료와 난치 질환 치료의 명의로 알려진 박수정 원장은 원광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신대 한방병원 진료과장과 삼지대 한의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대한통합암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이사와 사상체질면역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박수정 원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의료원은 한·양방 협진병원으로 1991년 개원 이래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올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 문민선·박재혁·윤영재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생명과학과 식물분자생물학실험실의 문민선 석사과정생과 박재혁·윤영재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이정환)이 202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문민선



박재혁



윤영재

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석사과정생 및 박사과정생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선정으로 1명의 석사과정생 및 2명의 박사과정생은 각각 향후 1년 및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장려금을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문민선 대학원생(석사과정 1년차)은 '애기장대 뉴클레오타스 개화조절 기작 규명'을, 박재혁 대학원생(박사과정 3년차)은 '애기장

대 NUP62 생체분자 응축물 형성에 의한 광주기 경로 매개 개화시기 조절 기작 규명'을, 윤영재 학생(박사과정 1년차)은 '고효율 재분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품질 유용 카베노이드 헵프 품종 개발'을 주제로 각각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재혁 대학원생은 지금까지 'Plant Cell Reports'를 포함해 총 4건의 SCI 및 SCOPUS 논문을, 윤영재 대학원생은 'Plants'를 포함 총 5건의 SCI 및 SCOPUS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연수원, '챗GPT

프롬프트 활용 전략' 공개강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23일 연화관에서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6차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챗GPT 프롬프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는 지방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롬프트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질문이나 지시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정진일(AI 프롬프트 연구소) 강사를 초청해 프롬프트 구조와 작성 원리를 이해하고,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엑셀 자동화 등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병기 원장은 "이번 교육이 디지털·AI 시대 미래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최나라 학부생

국제학술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최나라 학부생(생물환경화학과 4년·지도교수 박민구)이 최근 개최된 '2024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 국제학술발표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23일 전했다.

최 학부생은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어리살바구미에 대한 에틸포메이트와 설푸릴플루오라이드 혼중제의 효과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입 우드펠렛에 대한 주요 검역용 혼중제인 메틸브로마이드 대체를 위한 에틸포메이트와 설푸릴플루오라이드 약제의 어리살바구미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최 학부생은 우드펠렛에서 검출되는 어리살바구미에 대해 에틸포메이트와 설푸릴플루오라이드 혼중제 각각의 살충 농도와 시간을 규명,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약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 학부생은 "2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해 우드펠렛에 대한 동 약제의 침투성과 수확성, 그리고 대규모 현장 시험을 통해 약제 처리기준을 설정해 볼 계획"이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고, 화력발전소용 친환경 연료인 우드펠렛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